

지역 소식통

부안귀농귀촌지원센터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참가

부안군 귀농귀촌지원센터(이성기 센터장)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에 참가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군 정책 지원정책과 생활 여건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전은 aT센터 4층 창조홀에서 '내가 그린대로 시골'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전북자치도의 귀농·귀촌·귀어 활성화와 지역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군을 비롯한 도내 13개 시군이 참여해 지역별 맞춤 상담과 특화 지원정책, 성공 사례 등을 공유했다.

특히 사전 상담 신청 단계에서부터 완주군과 함께 가장 높은 신청률을 기록하며 부안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현장에서는 1대 1 상담 부스를 운영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교촌마을 우리

동네살리기' 집수리 착수

고창군이 '교촌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의 경관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핵심사업인 집수리 지원사업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교촌마을 집수리 경관계획'에는 건축물 외관, 담장, 대문, 골목길 및 외부공간 등 마을 전반에 대한 경관 개선 방향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이를 통해 개별 주택 정비는 물론, 마을 전체의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인 집수리 지원체계가 구축됐다.

고창군은 이달부터 노후주택(15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서류검토와 현장실태조사, 전담건축사의 전문 자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고창군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lets고창.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우체국 공동출장소 6일 개소

주민 711명 집단민원 4개월 만에 극적 타협... '집단 갈등 조정 우수사례' 평가

정읍시 우체국우체국이 폐국 위기를 넘기고 6일 출장소로 새롭게 문을 열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시는 이날 이학수 시장과 구분준 전북지방우정청장을 비롯해 김영수 우정면 이장협의회장 및 마을 이장단, 도·시의원,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우체국 공동출장소' 개소식을 열었다. 폐국 위기를 딛고 이뤄낸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로 꾸러졌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월 18일 우정우체국 폐국 결정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우체국이 문을 닫으면 고령의 농촌 주민이 금융과 우편 업무에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우정면 이장협의회는 주민 711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며 크게 반발했다.

갈등을 풀고자 정읍시 시민소통실은 발 빠르게 현장 행정에 나섰다. 관계자가 전북지방우정청을 직접 방문해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대안으로 대체 공유재산(건물, 토지) 부지를 제안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 달 23일 정읍시, 국민권익위원회, 우정사업본부는 집단 고충 민원 조정을 거쳐 극적인 타협점을 찾았다. 기존 우체국 명맥을 이어 주



정읍시 우체국우체국이 폐국 위기를 넘기고 6일 출장소로 새롭게 문을 열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민 불편을 줄이고자 운영 방식을 출장소 형태로 바꿔 존속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이다.

갈등을 넘어 상생과 협력으로 이뤄낸 이번 성과는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집단 갈등 조정의 우수사례'이자,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주민의 삶을 지켜낸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우정우체국 폐국 소식에 주민들이 느끼셨을 불편과 상실감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이번 결실은 시를 끝까지 믿고 성원에 주신 우정면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했던 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 전북지방우정청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을 겪는 곳이라면 언제든 먼저 달려가는 적극적인 시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격 장마 시작... 긴장감 갖고 재난 대비 총력"

심덕섭 고창군수,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군정소통회의' 개최... 군민 안전 최우선 강조

심덕섭 고창군수가 취임 직후 첫 현안으로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며 군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심 군수는 6일 아침 열린 군정소통회의(간부회의)를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군정소통회의'로 확대해 개최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대응계획과 비상근무체계를 확인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비상근무 단계별 대응절차를 비롯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계획,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재해 취약지역 관리대책, 읍면과 유관기관 간 상황전파 체계 등 재난 대응 전반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고창군은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변과 산사태 우려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예찰과 현장점검을 강화했다.

특히 고창읍성 성곽길 등에 위험 징후가 발견될 경우 출입 통제와 주민



대피 안내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전광판 등을 활용해 기상특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읍면동과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장마철 집중호

우는 짧은 시간에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점검과 상황관리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재난안전 부서를 중심으로 각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읍면과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교육복지중점학교 활동

ESG 실천 · 1박 2일 공동체 활동으로 학교 간 교류 확대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교육복지중점학교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7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학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함께 그린 내일, 같이 Green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고창 관내 교육복지중점학교 초·중학생과 교육복지사 등 24명이 참여하였으며, 상하농원과 명사심리해수육장 일대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1박 2일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급 전환을

앞둔 학생들은 상급학교 교육복지사와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학교급 전환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과 상급학교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생들은 명사심리해수육장 일대에서 플로깅 활동을 실시하며 지역 사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의 중요성을 배웠다.

한편, 고창 교육복지중점학교는 고창초등학교, 고창남초등학교, 심원초등학교, 고창중학교, 심원중학교, 자유초등학교, 고창북중학교 7개교가 참여하여 학교 간 협력과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고령 농업인 폭염 피해 막는다

예방요원 18명 현장 투입

정읍시가 여름철 폭염에 고령 농업인 보호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운영될 예방요원 18명을 현장에 투입한다.

농업 분야 온열질환 사망자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층인 만큼, 마을 단위 현장 밀착 안전 관리로 사고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 총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시는 생활개선회 소속 등 선도 농업인을 예방요원으로 선발했다. 인원은 읍·면·면에 각 1명, 동지역에 3명을 배정해 총 18명으로 꾸렸다. 이들은 지난 6월 10일 사전 교육을 마쳤으며, 농촌 마을을 직접 방문해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장에 투입된 요원들은 고령 농업인에게 온열질환 예방 수칙과 농작업 안전 정보를 안내한다. 특히 폭염 특보가 내려지면 작업 시간 조정을 권고하는 등 사고 예방에 앞장선다. 아울러 취약 농업인 1200여 명에게는 냉방수건과 팔토시, 냉감 깔개 등 온열질환 예방 꾸러미 3종을 나눠줘 현장에서 바로 쓰도록 돕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상거래용 저울 정기 검사 실시

정읍시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지역 내 상거래용 저울 정기 검사를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과 마트, 정육점 등에서 흔히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용 저울이다. 다만 최근 2년(2025~2026년) 안에 검정을 마쳤거나 판매용 저울, 가정용 체중계 등 상거

래와 무관한 기기는 대상에서 빠진다. 검사는 해당 기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지정 장소에서 이뤄진다. 무거운 저울을 옮기기 어렵거나 기기가 한곳에 밀집해 현장 방문을 원할 때는 별도로 '소재 장소 정기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를

받은 영업점은 7월 29일과 30일 출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